

2024 MAY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4.5.31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23년 6월 16일(금)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위치한 나자르바예프대학교에서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러시아, 한국의 7 개국 12 개 도시 25 개 대학 및 기관에서 교원 및 관계자, 학생 75 명이 참석하였다. (관련 기사 pp.2-3)

나자르바예프대
(관련기사 pp.2-3)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NU 한국학센터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중앙아시아 한국대
(관련기사 pp.4-5)

KKC 입학설명회, KICA 졸업식,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고문위촉식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6-7)

선후배 간의 만남, 추석맞이 체험, K-CULTURE DAY, 한국학주간

카자흐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8)

577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 포럼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Muratbayev 200,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나자르바예프대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23 년 6 월 16 일(금)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위치한 나자르바예프대학교에서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회장 세리쿨로바 미나라 교수)가 주최하고,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소장 고희운 교수),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소장 백태현 교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김 울리야나 교수)가 주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는 “변화하는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한국학 패러다임”을 주제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러시아, 한국의 7 개국 12 개 도시 25 개 대학 및 기관에서 교원 및 관계자, 학생 75 명이 참석하였다. 조태익 대사(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는 축사를 통해 2013 년 제 1 회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전염병 기간에도 중단 없이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해 노력해온 교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계 각국 한국학자들의 아스타나 방문을 환영하였다. 임철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도 지난 해 한국-중앙아시아 수교 30 주년을 기념하여 우즈베키스탄 한국학의 중심인 타슈켄트 동방대에서 개최한 제 10 회 대회에 이어, 세계적 명문대로 떠오르고 있는 나자르바예프대에서 개최한 올해 대회가 중앙아 한교협의 새로운 10 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개회식에 이어 세션 1에서는 반가운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KF 한국학 특강: 디지털 전환기 한국의 교육훈련과 일터혁신 정책”과 이승연 교수(삼육대), 강현주 교수(호남대), 장미경 교수(성신여대)의 “국립국어원 국외한국어교원(K-티처) 프로그램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제 11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장호종 교수)는 러시아 대학한국어교사협회, 아제르바이잔 대학한국학교수협의회, 에르지예스대 중핵사업단, LiWoo 에듀케이션의 대표를 초청하여 중앙아 한교협의 교류협력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점심식사 후 계속된 오후 학술대회는 세션 2(한국어-영어)와 세션 3(한국어-러시아어)으로 나누어 20 편의 한국학 논문이 소개되었다. 세션 2는 하희송 교수와 박천호 교수(이상 나자르바예프대)가 좌장을 맡았고, 세션 3은 한 넬리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가 좌장으로 다양한 한국학 분야의 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술대회를 마친 후 다음 날은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2013 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년 정식으로 출범한 중앙아 한교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연 1 회)과 소식지 <한국학 뉴스레터>(연 2 회)를 발행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의 공용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면에서 계속)



나자르바예프대

(2 면에서 계속)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nks.asia>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akspca6573>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akspca2012?utm_medium=copy_link
 사진

나자르바예프대는 2020년 8회 대회를 유치하였으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는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의 교원과 학생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힘입어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학 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아 한교협 1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지난 2023년 가을학기에 NU 한국학센터는 총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 센터 교수진들의 최근 한국학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세미나는 8월 28일 본교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고희운 교수(정치학)와 박천호 교수(정치학)가 실시한 실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치인들은 페미니즘을 외면하는가? 한국 지방의원들의 민주적 응답성 편향에 대한 실험 결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지방의회 의원 300여 명을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이메일 실험을 한 결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반페미니스트 편향이 실제로 존재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 세미나는 본 센터의 하희송 교수(정책대학원)가 “정부 신뢰와 전자정부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전자정부 사이트의 품질과 정부 신뢰 사이의 연관성이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미나에는 본교 교수와 학생이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세 번째 세미나는 10월 30일에 “북한 탈북자의 디지털 자본: 한국 시민들과의 비교”라는 주제로 본 센터의 고희운 교수(정치학)가 발표를 맡았다. 논문을 통해 고희운 교수는 국내의 탈북주민들에 대한 차별들 중 하나로 디지털 자본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국 시민들에 비해서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탈북자들은 디지털 자본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에 위치해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주장하였다. 매번 세미나에서는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을 통해 연구 방법론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건설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본 세미나 시리즈에서 발표한 논문은 NU 한국학센터로 문의하시면 받아볼 수 있다.

- 고희운 (나자르바예프대 교수)



중앙아시아 한국대

입학설명회 및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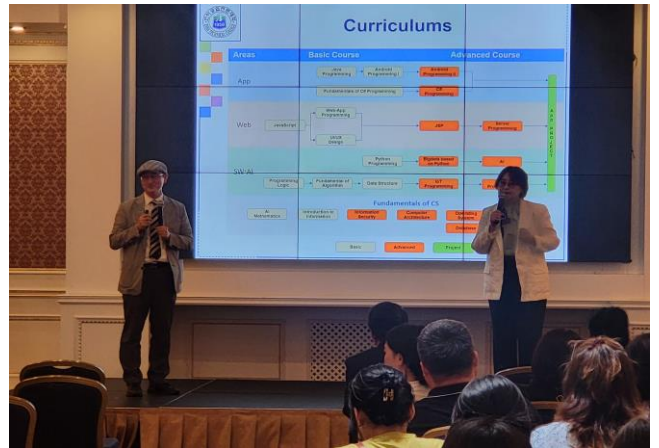
2023년 6월 30일(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한국 관련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비슈케크 소재 오리온호텔 대회의실에서 ‘키르기스 한국대학(이하 KKC) 입학설명회’와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이하 KICA)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KKC와 KICA가 주최하고, KICA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다.

당일 행사는 KKC 사물놀이팀의 기념 공연에 이어 KICA 최정희 교수와 KICA 4학년 베르메트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개회식은 온라인으로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 하태역 전 한국대사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서 세리쿨로바 미나라 KICA 총장의 환영사, 김재영 비서관 한국교육원장, 아지즈 아바키로프 키르기스스탄 HighTech Park(HTP, 키르기스스탄 IT 협회) 회장, 이재성 인하공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본격적인 KKC 2023년도 입학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에서 방문한 인하공전의 이재성 교수는 ▶인하공전 & KKC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ODA 사업) 소개, ▶인하공전 CS 학과 소개(동영상), ▶KKC 신설 CS 학과 교과과정 소개, ▶인하공전과의 복수학위, KKC 졸업 후 인하공전 학위과정(1년 혹은 2년)과의 연계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다음은 KKC의 협력대학인 미국 캘리포니아 경제과학대학교(California University of Management and Sciences, CalMUS)의 Dr. Jessica Mertz 총장의 축사와 대학 소개가 온라인으로 있었다. 이어서 KKC의 협력대학인 미국 MIAIR 비행학교(M.I.AIR Aviation Education) Sebastian Han 대표의 축하인사와 학교 소개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산디지털대학교(BUSAN DIGITAL UNIVERSITY) 남현숙 부총장의 축하인사와 입학홍보처장 송종원 교수의 대학 소개가 역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리쿨로바 미나라 KKC 법인대표 겸 KICA 총장이 ▶KKC & KICA 소개, ▶KKC 신설 3개학과(Computer Science 학과, Data Science & AI programs 학과, Multimedia Design 학과) 소개, ▶한국 및 미국 교류협정 대학과의 교환학생, 복수학위, 학위과정 연계 방안 소개, ▶KKC 장학제도를 소개하였다.

2012년에 개교한 KKC와 2017년에 개교한 KICA는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두 대학은 한국어와 한국학 전공학과 이외의 모든 학과에서도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이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어 및 한국학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두 대학은 향후 발전과제로서 ‘ICT 관련학과’와 ‘K-culture 관련학과’를 설립하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육·문화 교류는 물론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키르기스스탄의 ICT 분야 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추구해 오고 있다.

(5 면에서 계속)



중앙아시아 한국대

(4 면에서 계속)

이어 진행된 2023년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졸업식은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백태현 교수와 교직원,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을 위한 졸업생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키르기스스탄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주문한다”고 하였다.

-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및 고문 위촉식

2023년 10월 9일(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다마스호텔 대회의실에서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및 고문 위촉식 진행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백태현 교수의 소개로 진행된 행사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환영사와 닐루파르 알림자노바 야쿠브자노브나 국회의원과 카케예프 마라트 살라마토비치 바카이은행 부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당일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은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전승택 전각·서각 작가에게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최채우 삼성화재 상근고문에게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고문으로 위촉을 하였다.

행사장에는 한국에서 한영용 보주박물관 관장, 김세민 수의학 박사(인터폴)가 참석하여 축하를 해 주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장정현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 서기관, 추광석 키르기스스탄 KOFIA(코피아) 소장, 신동철 ‘BNK’ 법인대표, 예겔베르디예프 주마달 ‘쇼로(음료회사)’ 회장 등의 귀빈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및 키르기스 한국대학 재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하는 축전을 한국에서 보내 주었는데, 김부겸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 강승규 대한민국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축전이 행사장에서 소개되었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성낙인 전 총장과 전승택 작가, 그리고 고문으로 위촉된 최채우 삼성화재 고문은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교육 및 문화 분야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과 ‘키르기스 한국대학’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2023년 9월 ‘키르기스 한국대학’에 개설된 IT 관련 3개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키르기스스탄의 ICT 분야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 교수)



카자흐 국립대

선후배 간의 만남

2023년 9월 22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선후배 간의 만남’ 행사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재학생들 간의 친선 모임으로 상호 간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해 신학기 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1, 2 학년을 중심으로만 진행되었다(3 학년 일부 참가). 카자흐스탄 지역의 대학문화의 특성상 대학 내에서 선후배 간의 모임이나 동아리 등의 활동이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세부전공별, 수강언어별 그룹수업으로 인해 학과 내 구성원 간에도 서로 소통이 적어 학생 간 유대감이 돈독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년 행사에서는 1,2 학년들은 K-POP 댄스와 노래, 연주 등을 보여주었고, 3 학년들은 후배들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 한국 유학 준비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었다.

추석맞이 체험

2023년 9월 29일,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추석맞이 한국문화 체험 행사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한국학과 구성원들은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즐기며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금년 추석 행사는 새내기들인 1 학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송편과 인절미, 약과 등을 함께 나누며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편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투호', '웃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를 하며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1 학년 새내기들은 단체로 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사진을 찍거나 흥얼거리며 추석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이외에 고운 한복을 입고 학생들은 학부 내 다른 학과들에도 떡을 돌렸으며, 한국의 전통명절인 추석과 한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다. 추석맞이 행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고 있다.

- 이병조 (카자흐 국립대 교수)



카자흐 국립대

K-CULTURE DAY

2023년 11월 16일,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K-CULTURE DAY'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한국학과 학생들의 넘치는 K-POP 사랑과 열정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학과에는 K-POP 춤과 노래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다. 금년 행사는 상품과 상금이 걸린 대회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1~2 학년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끼있는 학생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참가자들 모두가 수준 높게 춤과 노래 솜씨를 보여주었다. 특히 전통부채춤 동아리반도 웅장한 음악에 맞춰 멋진 부채춤을 선보였는데,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대회 말미에는 한국 전통놀이도 있었는데, 놀이를 통해서 참가학생들은 한국 전통놀이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학주간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2023년 11월 20일~24일 기간에 연례행사인 '한국학주간' 축제가 진행되었다. 한국학주간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서 한국학과 학생들과 교원들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기관 및 단체장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등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날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한국시낭송 대회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 모두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시를 선택하여 가장 멋지고 웅장하게 낭송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학 골든벨: 나와 한국" 행사가 있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K-POP,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학 전반에 대해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2학년들이 주로 참여하고, 2학년이 주도하여 게임이 진행되는데, 우승팀에게는 선물도 주어지다 보니 학생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다. 셋째 날에는 한국어 수준을 자체적으로 측정해보기 위한 "한국어경시대회"가 치러졌다. 금년에는 1학년 중심으로만 행해졌는데, 입학 전 이미 한국어 과정을 밟은 학생들도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금년 한국학주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떡볶이만들기'와 '한국총영사와의 만남' 행사는 학과 내부 사정상 새해로 연기되었고,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되었다.

- 이병조 (카자흐 국립대 교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23년 10월 6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77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11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세계언어대, 세계언어대 부속 언어대, 사범대, 경영관광대의 한국학 교원 및 학생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카가즈바예바 동양학부 학장과 김요셉 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부법인의 축사로 시작되었고, 김 울리야나 한국학센터 소장이 한국학 학술연구 사업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중핵대학사업 대학원생장학금, 신한은행희망재단 장학금, RA 장학금, 한국학센터 장학금 등 본교 한국학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상품을 전달하고, 신실한 각종 대회의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알마티 한국교육원(원장 김태환)의 후원으로 한글날을 전후하여 영상대회, 작문대회, 시낭송대회, 한국음식문화의 날을 개최하였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도시"를 주제로 한 제 1회 한국문화 영상대회에서는 무함메트잔 잔사야, 주마갈리 마디나, 바자르바이 가우하르, 예르볼 아자르(이상 어문학전공 3학년)가 1등을 차지하였고, "나눔"을 주제로 한 제 1회 한국어 작문대회에서는 최 야나(통번역전공 2학년)가 1등을 수상하였다. 김소월을 주제로 한 제 1회 한국어 시낭송대회에서는 사이둘라예바 일기자(어문학전공 4학년)가 1등을 차지하였으며, 시낭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이날 행사에서 김소월의 시를 낭송하였다.

주마갈리 마디나(어문학전공 3학년)의 플루트 연주와 누르마메트 몰디르(어문학전공 3학년)의 K-POP 댄스의 축하공연 후에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글날 기념 퀴즈대회"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행사의 전체 영상은 아래 유튜브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8Wt9bufQns&list=P L2Uu8-eHQwnOjPDkvTKMMcI8na9Eu-lc&pp=iAQB>

- 장호중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

